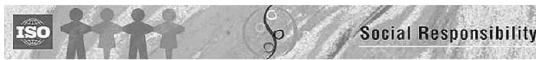


ISO 26000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동향



박정우

문화서비스표준과 연구관
02-509-7275



2005년 3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ISO 26000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이 지난 3월12일 마감된 ISO/TMB/WG SR 회원국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음으로써 국제표준안(DIS)으로 상징되었다. SR 작업반은 5월18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퀘벡에서 제7차 총회를 개최하고 투표과정에서 접수된 회원국 코멘트의 검토와 최종국제표준안(FDIS)으로 상징하기 위한 표준분안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ISO 26000은 표준개발 작업이 현재 페이스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2010년 하반기 제정이 예상된다.

■ '운명의 날 시계'를 움직이는 사회문제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는 당초 핵전쟁의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아이슈타인을 비롯한 원폭개발프로젝트의 주역들이 만들었다. 그들은 핵의 발달상황과 국제관계의 긴장 정도를 반영하여 시계의 분침을 조정하고 '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표지에 1947년부터 운명의 시간을 게재해 왔다. 인



류의 파멸을 가져올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하던 시계는 자정을 가리킨다. '운명의 날 시계'가 작동을 시작한 이후 반세기가 지나면서 지구를 위협하고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요인으로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기후변화와 생명과학의 발전을 핵무기와 함께 위협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 운명의 날 시계 홈페이지:

<http://www.thebulletin.org/content/doomsday-clock/overview>

■ We have the responsibility to make the world better.

사회적 책임이란 조직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최소화하여 보건과 사회복지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조직의 책임을 말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환경에 관한 리우 세계정상회의(1992년),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남아공 세계정상회의(2002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2000년), UN 글로벌 컴팩의 출범(2000년) 등 국제 사회의 분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중심에 사회적 책임이 있었다. 세계화가 부의 편중,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분제를 야기시키면서 위기상황에서 탈피하려는 인류의 노력

이 '사회적 책임 규범'을 모색하는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UN은 국제적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국제 기구로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UN은 90년대 초 세계 정상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대한 화두를 던진 데에 이어, MDG(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통해 국제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환경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UN 글로벌 컴팩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10가지 약속을 제정하고, 책임투자 원칙(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에 세계 투자 기관들을 서명하게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이외에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AA1000 등 국제기구나 민간기구들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감사 체계를 개발하는 등 국제 규범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종 국제 규범들은 ISO 26000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의 실질적인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MDG 관련 포스터)

[UN글로벌컴팩 10대 원칙]

인권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 존중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침해에 기당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노동	3. 기업은 생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격하여야 한다. 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배격하여야 한다. 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근절해야 한다.
환경	7. 기업은 환경보전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8.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9.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의 모든 종류의 부패를 반대한다.

■ ISO의 표준화 배경

글로벌 기업 활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2001년 ISO 이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준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에 요청했다. 2002년 9월 ISO기술관리부(TMB)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을 ISO가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좀더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전략자문그룹(SAG)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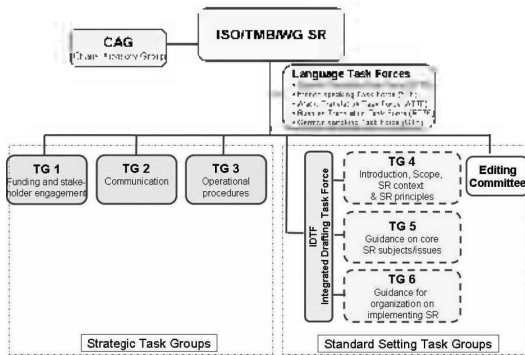


2003년 2월 전략자문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다뤄야 한다는 권고문을 ISO에 제출하였다. 2004년 6월 ISO는 스웨덴 표준원(SIS) 주관으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33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66개국에서 기업, 정부, 노동, 소비자, 그리고 NGO를 대표하는 355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직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작업을 ISO가 계속할 것인지, 계속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되었다. 회의에서 확인된 호응에 근거하여 ISO기술관리부(TMB)는 회의가 끝난 직후 사회적 책임(SR)에 관한 ISO 표준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9월 ISO기술관

리부(TIMB)는 사회적 책임(SR) 작업반(WG) 설치와 함께 사회적 책임(SR) 표준 개발을 위한 신규작업항목 제안서를 발표하여 회원기관들에게 회람되었다.

국제표준제안서(NWIP)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SR) 표준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법적 차이와 경제개발 조건의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조직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돕고,
-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이해관계자를 확인하여 포함시키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보고서와 요구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데 관련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 실질적인 성과와 개선을 강조하고,
- 조직에 대한 고객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확신과 반응을 높이고,
- 기존의 문서, 국제조약과 협약, 기존의 ISO 표준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상충하지 않고,
- 조직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 권환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광통된 용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



SR 작업반 내부 조직

ISO 사회적 책임 작업반(WG SR)은 ISO 회원(각국 표준화기관)과 협력 기구들이 지명한 정부, 산업, 노동, NGO, 소비자, 기타(서비스, 시포트

리서치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각국 표준화기관은 최대 여섯 명, 협력 기구들은 각기 두 명을 지명할 수 있다. 작업반에는 2009년 5월 현재 106개 ISO회원국 중 91개국이 SR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비회원국이다.

ISO 26000은 2005년 3월 브라질의 삼바도르에서 제1차 사회적 책임 작업반(WG SR) 총회가 개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작업반 총회와는 별도로 2005년 3월에는 ISO 26000이 ILO협약들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ISO와 국제노동기구(ILO)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06년 12월에는 ISO와 UN 글로벌 컴팩트(UN Global Compact)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ISO26000 국제표준안 개발 진행 현황]

ISO 26000 작업초안 제1판 (WD1)	2006년 3월 회람
ISO 26000 작업초안 제2판 (WD2)	2006년 10월 회람
ISO 26000 작업초안 제3판 (WD3)	2007년 7월 회람
ISO 26000 작업초안 제4.1판 (WD4.1)	2008년 3월 회람
ISO 26000 작업초안 제4.2판 (WD4.2)	2008년 6월 회람
ISO 26000 위원제안 (CD)	2008년 12월 회람

■ ISO 26000

ISO 26000의 명칭은 사회적 책임 가이드نس(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다. ISO 26000의 영문판은 100이쪽 분량이며, 서론, 핵심주제, 이행지침, 참고자료 등의 카테고리로 전체 7장의 본문과 부차, 서론, 개요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ISO 26000은 현재 DIS 단계이므로 FDIS로 상징 전 한 번의 수정이 더 가해질 수 있다. ISO의 다른 국제표준들과 마찬가지로 이 표준의 저작권은 ISO 본부에 있다. 지난 제7차 캐나다 총회에서는 이 표준의 활용을 확산할 목적으로 작업문서(WD, CD, DIS, FDIS)를 비롯한 국제표준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ISO본부에 제안할 것을 의결하였다. 무상 이용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저작권은 보호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 개요

개요에는 이 표준의 목적과 영향, 기본 개념, 그

리고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 구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목차를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 것과 표준의 성격에 대한 설명은 이 표준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목차 및 scope와 중복된 내용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목적 : 사회의 보건 및 복지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 영향범위 : 조직의 명칭, 근로자·고객들을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 직원의 사기·헌신·생산성 유지, 투자자·기부자·후원자·금융업계의 시각, 기업·정부·인본·공급업체·유관기업·고객·지역공동체와의 관계
- 내용 : 사회적 책임의 기본 원칙 및 사회적 책임 관련 핵심 쟁점과 이슈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기존 조직 전략, 체계, 실행 및 절차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 적용범위 : 규모에 관계없이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
- 성격 : 정부가 사용하는 경우 국가의 의무를 교체하거나, 대체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님. 인증이나 규제 또는 계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사용을 위한 것임. 또한 무역에서 비판적 장벽을 형성하거나 조직의 법적 의무를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님. 국제적, 국내적 또는 다른 절차에 있어 법적 행위, 소송, 변호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제관습법의 증거로 다루기 위한 것도 아님.

○ 적용 범위

ISO 26000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정의하고, 표준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나 그 한계 또는 예외 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범위나 ISO 26000이라는 표준의 성격과 역할을 분명히 정의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막아주고 있다. 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표준은 경영시스

템 표준이 아니며 인증을 목적으로 하지도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제7차 캐나다 총회에서 이 표준이 인증표준으로 편입될 것을 우려하는 중국, 인도 등 일부 회원국의 강력한 반발로 '이 표준으로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 표준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삽입되었다.

○ 용어의 정의

번도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들을 따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사회적 책임의 개념 자체, 즉 무엇을 의미하고 조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개념이 형성되어 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건, 주요 쟁점, 동향 등을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의 본질과 관행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진정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사회적 책임 원칙

사회적 책임은 원칙에 의거한 행위를 수반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행동강령, 지침 및 표준들을 근거로 조직이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원칙들을 도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원칙들이 세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갈등, 충돌을 막기 위한 폭넓은 차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7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사회적 책임 인식 및 이해관계자 참여원칙

사회적 책임의 두 가지 기본사례를 다룬다. 조직의 사회적 책임 인식과 이해관계자 참여 및 식별에 관한 것이다.

○ 사회적 책임 인식 및 이해관계자 참여원칙

조직의 활동, 업무 처리, 업무 조정 등의 과정에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WD 3.2판까지 하나의 항에 포함돼 있던 '실행'에 관한 내용 중,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실행 방안의 일부를 4.1판부터는 6항에서 따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핵심 주

제와 이해관계자를 선별하여 조직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사회적 책임 핵심주제에 대한 지침

사회와 환경적 책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주제들 고려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ISO 26000이 핵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 7가지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핵심 주제로는 지배구조 / 인권 / 노동관행 / 환경 / 공정한 영관행 / 소비자 생점 / 공동체 참여 및 개발이 있고, 각 핵심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괄, 혜택, 원칙, 주요 쟁점, 관련 행동 지침 및 기대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 조직 전반에 걸친 사회적 통합에 관한 지침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정책, 관행, 접근방식, 이슈 확인,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 우선순위, 점검 및 성과 평가, 보고 및 의사전달 등의 세부적인 실행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해준다.

[사회적 책임 핵심 주제에 대한 지침(요약)]

핵심 주제	개칭 사항
• 지배구조 개선	의사결정과정 및 구조 권한의 위임 투명성 및 윤리성 보장, 환경,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요구의 균형 유지
• 인권	비차별 및 평등권 보장 인권유전 권리 정당경제사회의적 권리 직장에서의 기본권 공무원과 민간인 차별 금지, 인권유전 동소 금지, 표현의 자유 존중, 은인 및 기증 불이행 권리 보장, 동과 같은 경우 자영의 심근적인 배치
• 노동 관행	고용 및 고용관계 근로조건,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대외 적정보장, 안전, 이익개발 불합 노동관행에 의한 해고 금지, 의거기업은 전통적 고용상행 우선 고려, 노동 대표의 작업량·보통자·조직원보 접근 보장, 스텝의 위험성 인식
• 환경	우열방지 및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환경보호 및 복원
• 공정운영 관행	획기적 감소, 독점적행동질 시을 공개, 세정시행 활동감안 마련, 문실기스 대제, 관 건제대로 인한 손실의 부상, 관부중 및 및중취기중 보호 부패방지 및 책임있는 정치참여 공정경쟁 및 계약관행 존중 부패·뇌물·이익 배외 금지, 부패의 두려운 없는 고립제도 마련, 투명한 공제, 불리· 관심·관등에 관한 기준을 구매·판매·계약절차에 적용
• 소비자 이슈	공정한 마케팅정보 및 계약관행 소비자보전 및 안전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 서비스 및 문제 해결 소비자정보 및 사생활 보호
• 공동체 참여 및 개발	원주·지역·공동체, 상용기여의 구상 심로 제소, 리용, 지속가능한 소비 지원, 합리적 인 유적·모수 시민은 제결, 소비자정보 보호, 확률적 소비자 교육 지역 공동체 참여 공공정책을 기술 개발 부패 조족 및 책임있는 무사 교육, 알리, 보건 역량강화 지역발전 무언이 참여, 정부관제자와 투영관제 금지, 고도해내 가능한 기술개발, 주민 협력과 유교제, 주세적부 주수, 운영관리, 문화참여, 지속가능한 여의전환

■ 마이클 포터의 속제

ISO 26000은 내년 말 제정을 예상하고 있는, 제정이 임박했다고 할 수 있는 현 시점까지도 표준의 성격과 규정의 수준, 이행방법 등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간·국가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논쟁거리를 남기두고 있다. '표준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수준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해법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표준의 이행단계의 불확실성 때문인 듯 하다. 인증, 컨설팅, 수입규제, 거래조건 등이 그 논쟁의 이면에 숨어 있는 키워드다.

사회적 책임 표준의 내용 중 환경, 반부패 등과 같이 강제해야 할 사항들은 이미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과 같아 불필요해 보인다. 그렇다고 조직(특히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기대치가 너무 낮다. 마이클 포터는 그의 저서 '경쟁론(on Competition)'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경쟁우위의 해법으로 강제정책(산업발전)과 사회정책(복지, 환경 등)의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폐수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직원들의 복지비용을 늘리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강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분리되고, 심지어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케케묵은 이분법이며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모든 조직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에필로그

『어린이날이었다. 아침방송에서 김동완 통보관은 “오늘은 어린이 얼굴만큼이나 해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멘트를 했다. 이어 방송국을 나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김씨는 비를 피하기 위해 다시 방송국 안으로 들어

갔다. 비는 계속됐다. 이때였다. 방송 자막을 통해 '오늘 효창공원에서 열리기로 한 어린이날 행사는 우천관계로 무산됐습니다.' 라고 알렸다. 이를 보는 김통보관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서울신문 김분기자가 만난 김통완 통보관의 에피소드 중에서),

사회적 책임 표준을 담당하면서 이 표준의 제정 시기나 영향력 등을 묻는 질문을 받을 때 제일 곤혹스럽다. 시류를 반영하는 bottom-up 방식의 제품표준과는 달리 필요성 제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책임', '사회 안전' 등 top-down 방식의 표준들은 제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fact가 없고 한 치 앞의 일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6차 산티아고 총회 이후 국내외 민간분야에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인증과 컨설팅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는 느낌이다. 너무 성급한 행보가 아닌지 크게 걱정된다.

- 'SR 또다른 무역장벽 되나 - ISO 26000 강제 인증 가능성, 한중미 우려 표명' ('09.4.8, 디지털타임스)
- '중소기업 62% 사회적책임 나몰라' ('09.4.17, 매일경제)
- '큰 회사마다 애플처럼 csr 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09.4.24, 중앙일보)
-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안 등록 - 내년 하반기 제정 확 실시, 정부차원 사전 대응 필요' ('09.4.13, 디지털타임스)
-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도입' ('09.4.13, 한경TV)
-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도입된다 - ISO, 기업 등 지켜야 할 환경·인권·노동 지침 내년 제정' ('09.4.13, 한겨레)
- '사회적 책임, 또 다른 무역장벽 되나' ('09.4.13, 한국경제)
- '사회적 책임 표준화 대비 서둘러야(사설)' ('09.4.13, 한국경제)

사회적 책임 관련 언론 보도 동향('08~'09년)

- '중소기업도 사회책임경영 서둘러야 - 글로벌스탠더드 될 것, 2년 뒤 수출·투자기대 역할' ('08.6.17, 중앙일보)
- 'ISO 26000 제정 임박 - 기업들 사회적 책임 경영 비상' ('08.3.17, 한국경제)
- '사회적 책임이 경쟁력 - 국내 200대 기업 70%가 전담조직 두고 추진' ('08.7.17, 한국경제)
- '한국기업 해외원조 적극 나서야 - UN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심포지움 개최' ('08.9.11, 매일경제)
- '윤리·투명경영 실천 사회책임경영 뜬다 - 사회공헌 만으로 한계, 기업경영서 중요성 커져' ('08.6.20, 한겨레)
- '중기청, CSR경영 입문서 발간' ('08.6.5, 매일경제)
- '대기업 윤리·투명경영 사내에서 감시 유도 - 기업 사회적 책임위 만든다' ('08.3.13, 문화일보)
- '확산되는 상생경영 - 삼성전자, 740개 협력업체와 사회책임경영 추진' ('08.10.1, 매일경제)

| 기술표준 2009. 6